

영암 올해 공모사업 유치 빛났다

일자리·도시개발 등 45건 선정 총 840억 확보 역대 최대 성과...체계적 대응 적극행정 결실

영암군이 올해 정부와 전남도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서 45건 선정, 총 사업비 84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민선7기 현재까지 총 18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070억원을 확보, 하반기에 추진될 공모사업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 유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각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대폭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은 각 부처별

공모사업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전략 대응 구축과 동분서주 발로 뛰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값진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올해 공모선정 분야는 일자리·도시개발·농촌·문화관광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두드러졌다. 주요사업으로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24억원),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기반 구축 사업(252억원), 조선 해양 친환경 특허 기술 공유플랫폼 구축 사업(14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경제동력인 대불국 가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고 조선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 및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영암군은 지역주민의 삶의 문화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호읍 아우름 플랫폼 조성사업(76억원)과 학산면 신활력 기(氣)충전소 누리 플랫폼사업(73억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70억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농촌 사회·경제 공동체를 육성해 차별화된 농업 혁신기반을 확보했다. 지역 농·특산물의 제품 다각화 및 품질 관리와 생산·가공·유통·관광의 선순환체

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에 공모 선정된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사업(110억원)은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개관된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트로트 가수를 양성하고 K-트로트의 명품화와 세계화를 위한 핵심 거점이자, 전남 지역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위기,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녹록치 않은 대외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군 모든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목포시가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문학박람회 개막에 앞서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박람회 전반을 소개했다. /목포시 제공

문학 전국에 알리기·휴식처 제공 등 목포문학박람회 막바지 준비 분주

목포시가 '2021 목포문학박람회' 개최 준비에 막바지를 가하고 있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목포문학관, 평화광장, 원도심 일원 등에서 개최되는 문학박람회가 개막 30일 앞으로 다가온다. 문학에 따라 시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추진 방향, 프로그램 등 박람회 전반을 소개했다. 시는 5가지를 문학박람회의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전시, 체험, 강연, 공연 등 109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5가지는 ▲문학(文鄉) 목포 전국에 알리기 ▲문학의 범위 확장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처 제공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운영 ▲목포의

문화유산과 문학의 만남 등이다. 시는 문학으로서의 면모를 알리기 위해 목포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했던 유명 문학인들을 집중 조명하는 '4인 4색 문학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학을 통한 휴식의 장소 제공한다. 문학 웰니스테라피존을 운영해 주행사장인 목포문학관 인근 갖바위 입암산 생태공원에서 문학 트레킹 등 문학을 매개로 지유하고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편성에도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근대문학길투어, 목포문학과 일주일 살기 등 여행 상품을 출시해 관광과의 접목을 꾀했다. /목포·박성경 기자

해남사랑상품권 1천억 판매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최대

해남군에서 발행하는 해남사랑상품권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최대 판매액을 달성했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상품권 판매현황 결과 해남사랑상품권은 1,057억원이 판매됐다. 특히 판매액 중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서 구입한 일반판매액이 882억원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해 주민들의 생활속에 지역상품권 사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민공익수당과 공직자 포상금 등 정책발행분은 174억원을 차지했다. 해남군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지역상품권의 활발한 유통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국비 113억여원을 확보해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3,400여개의 생활밀접형 가맹점을 다수 확보하고, 휴대성 향상을 위해 카드상품권 도입하는 등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지역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해남군은 추석을 앞두고, 상품권 10% 할인구매한도 상향과 함께 상품권 구매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부터는 개인당 월 70만원까지 할인구매 가능한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10% 할인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0일까지 기간 내 해남사랑상품권을 70만원 이상 구매하면 상품권 구매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당첨자는 총 200명(지류상품권 100명, 카드상품권 100명)으로 10월 중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농산물



해남군이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지역상품권의 활발한 유통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 제공

꾸러미세트가 택배 발송된다. 당점 결과는 군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문자 발송을 통해 통보할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군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해남사랑상품권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권으로 자리매김

하게 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10% 할인 판매행사를 통해 많은 군민들은 국·도비 지원 혜택을 받아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은 활발한 상품권 유통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강진 군자서원 고문서 유형문화재 지정

강진 향토문화유산 제56호 군자서원 소장 고문서(사진)가 최근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고문서 50점은 군자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로 군자서원의 건립과 운영, 문종의 족계(族契)와 종계(宗契)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 제도사 및 향촌 사회·경제사 연구에서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주요 자료는 1644년 심기원(沈器遠) 역모 사건에서 인조를 수종한 김신광의 공훈이 기재된 1646년 영국원공공신녹권(寧國原功臣功績錄券), 1782년 양산김씨 종계의 공사원(公司員) 및 전교(典校) 등의 명단을 기록한 종계집간(宗契執綱案)이 대표적이다. 군자서원은 양산김씨(梁山金氏)의 사우로 유항재(有恒齋) 김양(金亮, ?~1569), 절효(節孝) 김호광(金好光, 1600~1624), 행정(杏亭) 김신광(金伸光, 1608~1666)을 배향한 곳이다. /강진·한태선 기자



본래 명칭은 행정사(杏亭祠)로 지난 2004년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제8호로 지정됐으며, 2009년에 군자서원으로 승격됐다. /강진·한태선 기자

진도, LPG 배관망·전선 지중화 동시 추진

진도군이 LPG 배관망 보급과 진도읍 시가지 밝은 거리 조성·전선 지중화 사업을 동시 추진해 예산 절감 및 공사 기간 단축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한전 등과

협의를 통해 진도읍에서 추진하는 3개 사업을 통합 추진, 주요 시가지 이중 굴착을 방지해 2억원의 예산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2개월 단축하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LPG 배관망 보급사업은 주민의 반대로 잠시 중지됐지만, 지난 2019년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선진지 견학, 홍보물 제작·배포 등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 후 사업 추진을 본격 시작했다. 하지만 공사 구간이 46km에 달하고 진도읍 시가지 굴착공사가 꼭 필요한 군은 주민들이 겪을 교통 불편과 공사 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로 굴착이 필요한 타 기관 사업과 연계 추진할 방안을 검토했다. 군은 한전 전선 지중화 사업과 진도읍 주요 시가지 밝은거리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 실무자 협의를 거쳐 ▲각 기관별 개별 공사 일정 ▲굴착 구간 통합 관리를 실시해 예산 절감과 함께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영암, 희망드림하우스 전달식

영암군은 최근 '희망드림하우스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달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희망드림하우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영암읍 저소득 취약계층 2가정을 추천받아 각 가정에 2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열악한 공간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정에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실시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이웃사랑의 온정을 베풀고 계신 적십자봉사단과 건설공제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진도전 하천정화 활동 실시

진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근 가족봉사단 환경정화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도전 하천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관내 6가정 17명으로 구성된 가족봉사단이 참여해 직접 만든 500여개의 '흙공'을 진도전 1km 일대에 투척했다. 진도전에 투척된 흙공은 황토에 발효제와 EM용액(유용미생물)을 혼합한

등근 공 모양의 친환경 수질환경 개선제로 진도전 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 지역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관심을 갖고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자는 취지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가족 중심의 지역 환경 지킴이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도·박병호 기자



해남군이장단협의회, 장학금 기탁

해남군은 최근 해남군이장단협의회가 지역 청소년 교육을 위해 해남군 장학사업금으로 515만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장학금은 14개 읍·면, 515개 마을이 장들로 이뤄진 해남군이장단협의회에서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 마을당 1만원씩 실시할 뜻을 모아 더욱 의미가 깊다.

민삼홍 지회장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장학사업금 500만원 조성에 마을의 실립을 책임지고 있는 이장단에서도 기쁘게 동참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명현관 군수는 “515개 마을이장들의 따뜻한 마음이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기탁금은 교육환경 조성에 쓰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